



24일부터 독자
란의 법률상담을
부산변호사회 소
속 李雲道 변호
사(사진)가 맡게
되었습니다. 독
자여러분의 상담
에 신속·정확하
게 답변해드리고
있사오니 많은

투고 바랍니다. 지난 1년동안 본란을
맡아 수고해주신 盧武鉉변호사에게 감
사드립니다.